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경캠페인

인생의 시련 극복할 근원적인 힘 무엇?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청소년 때는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 깊은 사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특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고 정확한 통찰력을 갖지 않으면 '허울'만 보는 눈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가치, 진실로 소중한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냉철한 이성을 갖도록 많은 독서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지계미'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허울 : 실속이 없는 겉모양.(자넨 아직도 우리 집안을 무서운 집안으로 알고 있네만, 우리집은 이제 허깨비세, 허울만 근사한 덩덩 빈 껍질뿐이야.)<홍성원, 육이오>

지계미 :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 일반적으로 술지계미를 뜻합니다.(안남미 반에 술도가에서 얻어 온 막걸리 지계미를 뿔아 그걸 빈쯤 섞어 지은 밥이었다.)<김원일, 불의 제전>
또, 술을 많이 마시거나 열기가 있을 때 눈가에 끼는 눈곱을 뜻하기도 해요.(입에서 술내가 나고 눈에서 지계미가 나오면서 허 꼬부라진 소리로 말을 하였다.)<한용운, 흥족>

저어하다 :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선회는 잠든 병인을 깨울까 저어하는 모양으로, 발끝으로 걸어서 침대 곁으로 와서 우두커니 섰다.)<이광수, 흥>

인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서머셋을 작 '인간의 굴레'

이 소설은 영국 작가 서머셋 모의 대표작이요, 작자 자신의 전반생애에 대한 정신적인 자서전으로 2년간의 집필 끝에 이루어진 노작입니다. 이 작품을 쓸 당시 모는 인기 있는 작가이며 극작가로 성공을 거둔 뒤였지만 말더듬이로 고통 받던 초등학교 시절과 모친과의 사별 등 불행한 과거의 추억에 북받쳐 그것을 뽐내고 싶은 충동에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해요.

"나는 결핍 수 없는 그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작품을 썼다. 나는 바리던 성과를 얻었다. 교정을 끝냈을 때 나는 온갖 망령들이 전부 무릎 꿇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작자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불행했던 젊은 시절은 이 소설을 통해 그대로 재생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굴레>에서 '굴레'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인공 필립 케리가 출생이후 줄곧 그에게 닥쳐왔던 인생에 있어서의 속박을 의미하겠죠. 선천적인 불구와 고아로 살아야하는 현실 속에서 경제적 궁핍과 사랑하는 여인의 거듭되는 배신들이 속박이며 굴레로 다가온 것이죠.

주인공 필립 케리는 양친과 사별하여 목사인 숙부에게 위탁해 기숙학교에 들어가지만, 절름발이로 인한 온갖 놀림과 열등감 때문에 고민한다. 그

는 당초에 성직을 갖고자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하려 했던 꿈을 포기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로 유학을 떠난다. 그러나 고아이며 불구자인 케리의 괴로운 현실에서의 좌절로 이어진다. 그는 귀국하여 런던에서 회계사 수업을 해보지만, 그것 또한 불만스러워 이번에는 그림을 공부하기 위하여 파리로 간다. 그러나 그림에도 재능이 없음을 깨달은 그는 다시 귀국, 의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재학 중 다방 종업원인 밀드리드와 친하게 된다. 주인공은 소설 속에서 5명의 여인과 관계를 갖는데, 이 중 밀드리드는 3번째 여인으로, 케리는 그녀에게 완전

작가 전반생애에 대한 정신적 자서전 불행했던 젊은시절을 그대로 반영

히 반해 버려 백치와도 같은 순애를 바친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외의 남자가 있었고,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다른 남자로부터 배반을 당해 그에게로 온다. 케리는 밀드리드의 빛을 갉아주고 그녀를 돌본다. 오랫동안 애육에 빠진 그는 파국까지 이른다. 그러나 결심한 바 있어 그는 의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을 갖고 시골 처녀 샬리와 행복한 결혼도 한다. 30세가 되어서야 그가 선택한 결혼 상대자는 교양이나 지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건강하던 서도 부지런한 주부형 시골여성이었다.

고아와 불구라는 이중의 고통을 짊어진 주인공이 어떻게 인생을 괴로워하고, 어떻게 인생을 꿈

꾸고, 어떻게 인생을 배반당하며, 어떻게 인생을 해결해 나갔는가를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작가는 고난에 넘친 생활 가운데에서도 오직 인생의 의의만을 생각하는데, 그가 도달한 결론은 결국, "인생은 페르시아 융단의 꽃무늬 같아서 화려하긴 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모욕 특유의 페시미즘(염세주의)인 것이죠.

작가가 하고 싶은 중심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에게는 수많은 속박과 굴레가 존재하지만 진실을 찾아 헤매는 가운데서 속박과 굴레는 벗겨지고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인생은 행복이라는 척도로서가 아니라 죽음과 더불어 완성되고 소멸되는 하나의 예술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는 수많은 인생을 체험한 끝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종교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된 최초의 사건 생각나오? 마가복음에 나오는 구절 즉 "무엇을 구하는 것은... (중략)...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절을 믿으며 자신의 신체적 불구가 원치되길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린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종교에 대한 불신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죠. 종교적 윤리적 의식에 해방되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 하이델베르크로의 유학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닥쳐올 인생의 시련의 출발점이었지요. 경제적 정신적 시련을 겪으며 인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평범하게 살고자 했어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며 인생에 대한 강한 집착은 또 하나의 속박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허무주의적 인생관이 반영되어 있지요.

인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버리는 점, 입사상담과 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친구들과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저만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게 힘든건가요.T 얘기하다보면 자꾸 휘둘리고 제 말투가 신기하다며 따라하고... 애틍이랑 이야기할 때 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D:고딩)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딩님. 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에 이리저리 잘 휘둘러 정작 자신의 뜻을 밝히 못하는 부분이 있군요. 막상 불만 즐거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또 친구들에게 휘둘린 것 같아 후회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유독 고딩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님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는 부분에 있어 님을 당황하게 하는군요.

고딩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도 해보았지만 고딩님의 새로운 모습에 어색하고 친구들이 빨리 받아들이지 못해 더 힘들겠어요.

고딩님께서 참 편안하고 착한,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고딩님의 그런 성격과 행동이 좋은 쪽으로도 많이 영향을 미칠텐데 친구들이 왜 님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구들이 님이 우습거나 깔려 다닐려고 하는 생각보다 항상 같이 다니려고, 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고 친하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친구들이 장난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분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또래상담실 주은아님

“논술의 자신감” 권오준 씨는 ‘제임 이슬랑’ (1839년)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 by. 경유조형

1839년 에머슨은 ‘자기 신뢰’라는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어려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그는 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원하는 것에 충실하세요!

에머슨은 인간존엄이 있어 유일한 진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겐 중점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칭찬을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운 것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은 한 댜기의 정원을 가꾸듯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할 만한 사랑의 인성이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제임 이슬랑

에머슨은 선생님 성공이란 뭘까요?

성공이요?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휴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휴침대**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 장수구들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인기 상품 422 로채Q (황토흙)	인기 상품 304 목련Q(음수목)	특별가 235만원 424 비토Q (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맥반석)
------------------------	-----------------------	-------------------------------	--------------------------------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소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	--------------------	----------------	---------------	--------------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 (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휘하리247번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